

#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 : 가족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y Services and Program Administration of Family Centers Related to Family Diversity  
: Focusing on Family Center Practitioner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손 서 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서 찬 란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oh, Sun-Kang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on, Seohee

Office for Environment & Welfare Committee,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Policy Support Specialist Seo, Chanra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초록〉

본 연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한 가족센터 실무자의 운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 혹은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자료 분석은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가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족다양성 적용을 고려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 사업을 위한 자원 부족,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향후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주제 발굴 등과 같은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다양성 적용과 확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개편 근거 및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다양성 관점을 적용한 가족 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족다양성, 가족서비스, 가족센터, 가족센터 실무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발간번호 2022-KIHF-195)의 일부를 수정·보완함.

\*\*주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http://orcid.org/0000-0003-1826-6416>

\*\*\*교신저자: 손서희(sson@sookmyung.ac.kr), <http://orcid.org/0000-0002-0608-081X>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mily diversity-related service experiences of Family Center practitioners under the main policy goal of recognizing family diversity set out in the Fourth Master Plan for Healthy Families. To this e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2 Family Center practitioners in multiple cities and districts who had extensive family service experiences. The focus group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analysis found that Family Center practitioners understood the concept of family diversit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family policy environment and applied it in various forms to the administration of their respective centers. However, while administering the family support services considering the aspect of family diversity, they experienced a lack of resources for various family service programs, conflicts between each family service goal and the family diversity-related program goal, an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recipients. To expand family diversity-related services in the future, the interviewees emphasized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s about family diversity targeted at Family Center practitioners, and family support servic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y also stressed the need for changes in program operation methods, such as expanding family diversity education, and developing family service programs appropriate for diverse families. Lastly, they highlighted the need for mounting a publicity campaign for Family Centers, widening the target recipients of family programs, and expanding the budge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family diversity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restructuring family services for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family diversity practices, and as educational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family service practitioners to plan and execute family support programs that take family diversity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 family diversity, family service, Family Center, Family Center practitioner

## I. 서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떠한 유형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한 집단 안에 속하고 더불어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무수히 많은 유형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차 각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증(변수정 외, 2014)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핵가족이나 3대 직계가족 등의 정형화된 형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세계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등을 겪으면서 분거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혼·재혼 가족, 무자녀부부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 발달주기에 따른 가족 내 역할이나 생활에서의 보편적 경험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생활양식이 존재하는 현 가족 환경의 복잡한 실태를 인식하는 것은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가족 유형의 다양화와 변화 흐름에 맞춰 가족정책 영역에서도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논의해왔다.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가족다양성 인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가

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가구 규모 축소, 1인 가구 증가,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및 가족 변화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을 단위로 한 접근에 더해 가족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 과제들이 강조되고 있다(박정윤 외,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목표인 '가족다양성 인정'은 가족의 형태와 특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기존의 결혼제도, 자녀 출산과 양육 중심의 가족체도를 벗어나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수용성 증가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족정책의 단위를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포괄적인 접근 및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각각 지원하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현장 맞춤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가족서비스 현장에

서 가족다양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시군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다양한 가족, 나아가 「세상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을 통합한 프로그램(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제외)을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시·군·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가족’ 사업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1인 가구 등의 특정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서비스로 이해되어,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2). 이로 인해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가족다양성을 가족의 유형과 형태의 다양성으로 한정하는 경향성과 특정 유형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진미정, 2021).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이후 가족센터의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해 가족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가족센터 실무자들의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다양성 인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기반의 가족서비스를 재정비하고, 가족다양성 관점을 반영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에 부합

하는 가족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족다양성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배경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를 ‘구성과 형성 방식의 다양화’로 설명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구성의 핵가족 비중 감소, 만혼 및 혼인 감소 등으로 가족 형성의 지연,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비혼 출산,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 내 개인 가치 부각, 젠더(gender) 갈등 지속, 가족유형별 소득 격차 지속 등을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다양성 포용’,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며, 가족정책의 기조로 가족다양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과제와 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표 1〉 참고), 정책 영역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의 세부 정책과제 중 ‘1-1.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이 있다. 정책 영역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에서는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정책 영역 3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

〈표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관련 세부 정책과제 예시

| 영역                         | 정책과제                       | 세부 정책과제 예시   |
|----------------------------|----------------------------|--|
|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 1-1.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구성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li> <li>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 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 방안 마련</li> </ul> |
|                            |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li> <li>공무원 등 대상별 가족다양성 교육 운영, 정부간행물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매체 홍보 등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li> <li>성불평등한 가족의례·문화를 발굴·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 지원</li> </ul>              |
|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이혼 전후 지원 강화</li> <li>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li> <li>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li> <li>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li> </ul>   |

| 영역                     | 정책과제                         | 세부 정책과제 예시  |
|------------------------|------------------------------|---|
|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li> <li>• 가족교육·상담 등 서비스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li> <li>•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가족 상담 서비스 확대</li> <li>-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에 대한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서비스 제공</li> <li>- 이혼 전·후, 부부간·부모간 가족관계, 가족갈등 및 자녀양육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li> <li>• 가족관계 개선, 가족내 의사소통 및 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가족교육 확대</li> <li>* 부모·부부 역할, 이혼전·후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향상 등</li> <li>-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양기관 간 협의체 구축, 입양가족(부모) 교육·상담 지원</li> </ul> |
|                        |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li> <li>•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li>• 미혼모·부, 한부모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등 맞춤형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li> <li>•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내실화 및 관계부처 협업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li> <li>• 저소득가구,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 아동 등 지역사회 취약가족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추진(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ul>   |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적 돌봄 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에서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족센터 서비스와 연결지어 살펴보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정책 목표에서의 관점과는 달리 여전히 가족 유형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 정책과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 유형들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 미디어 등을 활용한 과제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정책은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 가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둘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 정책과제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서비스 과제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임신출산갈등, 미혼모부, 장애인가족, 취약가족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는 '가족다양성 인정'으로 설정하였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 정리하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서비스 방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 특정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가족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족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가족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가족다양성 연구는 주로 가족다양성 인식과 수용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 가족 이외의 가족 구조와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특정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수용도를 연구하였다(김성숙·강현경, 2012; 김화선, 2016; 박미경, 2017; 유계숙, 2005; 유계숙·유영주, 2002; 이선영·정유진, 2018; 이진숙, 2017; 최은경 외, 2021). 다수의 연구들이 유계숙과 유영주(2002)의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가족다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유계숙과 유영주(2002)는 형태적 가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가족구성 다양성 수용 척도를 20개의 다양한 가족구성과 가족관계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근애와 전효정의 연구(2010)에서는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확대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제시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가족다양성을 측정하였다.

2020년에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여성가족부, 2020)에서는 '이혼', '재혼', '동거', '독신', '무자녀 부부', '비혼출산', '국제결혼', '미성년자의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여 가족다양성 수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 개발연구」(최샛별·이명진·최유정, 2021)에서는 30개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조사대상자가 각각을 가족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가족다양성 수용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문항들로 가족다양성 수용도를 측정하였다.

가족다양성 관련 선행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요약·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이들 선행연구에서 가족다양성은 다양한 가족 구조, 다양한 관계,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다양

성에 대한 고려는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가족다양성 인식과 수용도 측정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의 「2022 가족사업안내(1)」

의 기본사업에서도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이 제시되어 있어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방향도 이러한 범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고선강·손서희·서찬란, 2022).

〈표 2〉 가족다양성 인식·수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 연구주제                   |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문항   |
|-------------------|------------------------|--|
| 유계숙·유영주<br>(2002) | 형태적 가족개념 연구            | 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br>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br>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의 중년 여성<br>4.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복/이부 형제간임)<br>5.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br>6.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br>7. 한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br>8.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br>9.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br>10. 이혼한 남성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과,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편의 아이 (이 남성은 그녀와 재혼하면 아이를 함께 키울 결심임)<br>11.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 (아이의 생모는 전남편인 생부와 이혼하고 현재의 계부와 재혼했으나 2년 전 병으로 사망했음)<br>12.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br>13.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 간의 두 남성<br>14. 레즈비언(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 (한 여성의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다른 한 여성의 아이는 한때 동거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br>15.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집에 같이 사는 미망인<br>16. 2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자녀는 없었음)의 양가 부모들<br>17. 어릴 적 친구와 한집에서 같이 사는 77세의 할머니<br>18.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견을 키우며 사는 84세 할머니<br>19. 나와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br>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
| 이근애·전효정<br>(2010) | 아동이 인식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부모 가족</li> <li>• 한부모가족</li> <li>• 확대가족</li> <li>• 핵가족</li> <li>• 조손가족</li> <li>• 재혼가족</li> <li>• 장애인가족</li> <li>• 맞벌이가족</li> <li>• 입양가족</li> <li>• 다문화가족</li> <li>• 소년소녀가장가족</li> <li>• 독신가족</li> </ul>  |
| 여성가족부<br>(2020)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 1.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li> <li>•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li> <li>•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li> <li>•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li> <li>•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li> <li>•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li> <li>•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li> </ul> 2. 본인이 결혼하려는 상대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의 자녀</li> <li>• 재혼가족의 자녀</li> <li>• 미혼모/부 가족의 자녀</li> <li>•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li> <li>• 다문화가족의 자녀</li> <li>• 입양된 자녀</li> </ul>   |
| 최셋별 외<br>(2021)   |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 개발연구    | 1. 다음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인 혼인 및 혈연관계인 사람들</li> <li>•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아버지와 자녀(들)</li> <li>• 어머니/아버지 중 한 사람과 입양된 자녀(들)</li> <li>• 어머니와 정자은행을 통해 낳은 자녀(들)</li>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남녀커플</li> </ul>   |

| 연구자(연도) | 연구주제                       |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문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남녀커플과 그들의 자녀(들)</li>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20대 남녀커플 등 총 30개 유형</li> </ul>   |
|         | 2. 개인적 수용성(다음의 사람들과 관계 맺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들)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li> <li>•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li> <li>•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커플</li> <li>•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커플의 자녀 등 총 13개 유형</li> </ul> |

가족센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가족다양성이 다소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과정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로 여겨져 왔다(김아래·이민경, 2015; 박인옥, 2022). 예를 들어, 박인옥의 연구(2022)에서 다양성은 상호문화교육 요소 중 다양성으로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문화 다양성의 인정과 수용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사업 중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분리하기보다 통합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인옥, 2022).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 종사자의 다양성 인식을 살펴본 김아래·이민경의 연구(2015)에서도 다문화 관련 역량과 다양성 인식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 등의 능력이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과 같은 조직의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종사자의 다양성 인식, 문화간 의사소통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아래·이민경, 2015).

나아가 일부 연구자는 다양성을 다문화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정윤 외(2019)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고려한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족다양성을 포용하되 계층, 성,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지원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중심의 가족다양성으로부터 확장하여 무자녀 부부가족, 1인 가구, 중장년·노년기 가족 등 기존 가족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대상을 포괄하는 가족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형태로서 가족을 구분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이 아닌 관계로서 가족을 상징하고 대상 가족의 범주를 확대 포용하는 가족서비스 설계를 강조하였다. 가족다양성을 확대하는 가족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원의 역할과 관계, 가족생활주기별 강

조되는 가족의 기능이 고려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 대 비다문화라는 구분에서 나아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은주·설무란·오민영, 2021).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어떠한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 혹은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있어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도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의 가족센터 실무자<sup>1)</sup> 등도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시간 내외로 총 4회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참여자 전원에게 사전 제공하여 질문 내용을 참여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 인터뷰의 자발적 참여 및 중단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초점집단면접 및 참여자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중 9명은 센터장이었고, 3명은 사무국장 혹은 총괄팀장 등의 중간관리자였다.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다.

초점집단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이후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 및 성과’,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에

1) 가족센터 센터장과 중간관리자를 실무자로 통칭하여 기술함.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자들의 경험, 생각, 인상, 통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초점집단면접 및 참여자 구성

| FGI 구분 | 참여자         | 직급            |
|--------|-------------|---------------|
| 1      | 가족서비스 실무자 A | OO시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OO구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C | OO구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D | OO구가족센터 사무국장  |
| 2      | 가족서비스 실무자 E | OO시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F | OO시가족센터 총괄팀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G | OO시가족센터 사무국장  |
| 3      | 가족서비스 실무자 H | OO광역시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I | OO광역시가족센터 센터장 |
| 4      | 가족서비스 실무자 J | OO군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K | OO군가족센터 센터장   |
|        | 가족서비스 실무자 L | OO시가족센터 센터장   |

## 2. 자료 분석 방법

초점집단면접 자료 분석은 전사된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공동연구자 전원은 모든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하였고, 면접 이후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면접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연구자 1인이 MAXQD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1차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자들의 반복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중심 주제와 결과를 도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가족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가족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족센터 사업 적용 노력,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가족서비스 확대 방향 등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 1. 가족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족센터 사업 적용 노력

본 연구에 참여한 12개 시·군·구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통합 과정, 이후 가족센터로의 명칭 변경,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등의 가족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표 4〉 가족서비스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주제                          | 하위 주제   |
|-----------------------------|---|
| 가족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족센터 사업 적용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의 이해 노력</li> <li>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li> <li>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li> </ul>  |
|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가족서비스 목표 및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 갈등</li> <li>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li> </ul>   |
|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가족서비스 확대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족서비스 관계자 교육</li> <li>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운영</li> <li>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li> <li>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li> <li>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li> </ul> |

### 1) 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의 이해 노력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가족의 모습과 다른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 서비스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센터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족들의 빠른 변화와 함께 가족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 개념 이해 및 사업 적용을 위해 실무자 간의 토론, 실무자 교육 수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다양성을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개별센터의 실무자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으로 남아 있음을 표현하였다.

덩크족, 덩펫족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50대,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들어도 이상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시다. 그리고 비혼인으로 출산한 사유리 씨 방송인, 그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이전에 저희가 보통 이제 가족이라 하면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틀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다양한 가족이 있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가족들도 모두 동성혼 가족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데... 받아들여기는 아직은 버겁긴 하지만, 모두 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건강가정기본계획」 직원들 같이 다 놓고 공부했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센터 사업에 녹아나게끔 하는 건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해서 중간에서 짚어줘야 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2)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1)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 (3)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가족센터 사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 (1)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는 지금까지 자녀 양육기 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대표적인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센터들은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군인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1인 가구 등 지역 내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2022 가족사업안내」의 사업 방향을 보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예전에 건가, 다가로 이분화되었을 때에는 비다문화와 다문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한부모나 조손이나 또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맞벌이나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중략)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을 좀 홍보하고 있고, 대상자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E)

일부 실무자는 서비스 대상 확장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서비스 대상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확장을 해야된다고 해서 꼭 이게 다양한 가족 자체의 구성원 형태의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최근 들어서 보면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중도입국 자녀 등, 저희 지역에는 좀 많이 계속 아이들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중도입국 자녀 아이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집중해서... 기존에 다문화화를 많이 해왔으니까 다문화는 기존대로 하고... 예를

들면 맞벌이라든지 앞에 언급하신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제 다문화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F)

한편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족센터의 강점으로 여기면서도, 일부 실무자는 가족을 어디까지 구분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가족다양성을 가족유형별 서비스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가족을 계속 유형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에 있어서 실제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가족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형을 어디까지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이냐. (중략) 가족을 계속 유형화로 나누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센터 사업도 이제 그거와 아까 사업도 연결해서 간다라고 하면 '너희가 다양한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니?'라고 하면 저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면 유형별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1인 가구 사업도 하고 맞벌이가족 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사업도 하고 무슨 유형. 거기다 더 넓게는 센터별로 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족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센터가 과연 가족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로 저희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족을 유형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이 계속 조화롭게 묶여야 된다고 하면 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혼합이 되어 혼재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돼서...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2)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상당수의 가족센터들은 대상별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함께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 센터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할당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든가 입양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다 쪼개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 모이게끔 교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D)



대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약간 할당량을 줘요. 한부모가족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다문화가족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터 그 안에서 쉬게 하려고 하고, (중략) 사실 그 안에서 그들이 한부모가족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쪽은 이제 부모랑 같이 오고 여기는 아버지랑만 오거나 엄마랑만 오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저기는 그냥 아빠만 있고 이런 거로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자연스럽게 좀 더 합류가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합해서. 저희가 문화 사업을 해도 다문화 분들은 다문화 분들끼리 이렇게 군집이 돼요. 그들끼리 묶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좀 약간 인위적으로 약간 일부터 좀 쉬게 하는 방법들을 해서 그냥 우리 이웃에 이렇게 다 있구나 정도로 하는 거지.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3)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

가족센터에서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을 시작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내용을 확장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가족센터의 경우 사업 진행에 앞서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식 캠페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온라인을 이용해서 SNS 공모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관련 교재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독서 챌린지, 혹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나온 어떤 문구/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보내 주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상품을 드린다든가 이런 공모전 형태로 저희가 최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1)

다문화가족만 인식개선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입양가족이라든지 미혼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OO'이라는 이런 메뉴얼을 만들고 강사 치침서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 회기씩 진행을 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C)

## 2.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가족다양성 적용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에서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양한 가족보다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 1)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

특히 지방의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센터 운영 예산 및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다문화가족 대상 예산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다문화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이 인식하는 센터 존재 이유는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가족센터로 변화되면서 전체 국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기본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전제로 다 열어요. 다문화가정 비율을 높이긴 하나 일반 가정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저희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수가 많다 보니 지자체에서 특별히 100% 추가로 지원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략) 오직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예요. 건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저희는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이걸 어떻게 더 확장시켜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J)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이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문화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런 인식을 깨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센터라고 하는 네이밍이 바뀌고 건가·다가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아...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체들의 사회공헌팀에다가 다문화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주는 거는 다문화이지만, 사적인 영역의 사회공헌에서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프리포절을 쓸 때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한부모라든가 조손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포괄해서 달라고 하는... (가족서비스 실무자 E)

최근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외에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센터의 일부 사업비는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비로 배부된다는 측면도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에 어려운 요소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이제 광역 예산으로 편성돼서 매칭 사업 내려온 게 있지만, 그전에는 전부 아예 명시 자체를 다문화가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가족을 타깃으로 한 사업비가 따로 내려온 건 없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F)

예산도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너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고 하기에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력이 없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2) 개별 가족서비스의 목표 및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 갈등

가족서비스 운영 시 개별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외에 가족다양성 고려나 다양한 가족 간 교류 등의 새로운 사업 목표가 개별 단위사업에 추가됨에 따른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목표 간의 충돌은 통합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 경험한 어려움과 유사한 형태임을 지적하였다.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은 좀 분리를 해야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뭘 던져봐도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다양한 가족의 다양성 이런 부분의 취지는 참 좋은데요. 함께 어우러짐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될지는 저희들에게 남

겨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H)

가족서비스가 주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족다양성의 가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가족서비스 실무자에게는 어려운 이슈였다.

얼마 전에 저희 한부모 가정에서도 좀 민원 아닌 민원을 했거든요. 담당자가 가족 단위로 우선 배치를 했더니, 이제 후순위가 됐는데 왜 본인이 거기에 접수가 안 된 건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가족 단위를 우선으로, 가족 단위라 하면 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만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버지 참여를 독려,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중략) 아빠가 참여시에 더 우선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우게는 했지만, 내부에서 그게 필터가 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제 찾아보면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D)

가족사랑의 날 같은 경우도 취지 자체가 1인 가구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가족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취지로 봤을 때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 3)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가족의 사회적 구학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특정 대상별 사업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탄력적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에서는 대상별로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침에 의해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그걸 진행하는 지방에서는 그대로 맞춰서 한다는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맞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같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워... (가족서비스 실무자 L)

저희 시군, 군 단위에서 접할 수 있는 청소년 가구는 아직 없더라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K)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곳에서는, 저는 다문화가족 사업이 훨씬 더 특화되고 많이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000처럼 외국인 주민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똑같이 거의 60% 되는 이 할당량의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어... 그래서 아까 지역적인 특성별로 사업을 다시 좀 통합을 해서 기본적인 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3.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가족서비스 확대 방향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이 가족센터 사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실무자 및 가족서비스 관계자들의 이해와 가치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가족다양성 사업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및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의 홍보 강화, 그리고 가족다양성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1) 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족서비스 관계자 교육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확대에 앞서 "가족다양성" 개념 및 가치에 대한 가족서비스 관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생각보다 저희 담당자들이나 혹시 이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강사들이 과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차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가족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과연 가족의 다양함을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라는 걸 계속 질문을 좀 많이 드렸어요. (중략)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가족의 다양성을 우리 센터에서 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략) 여가부나 한가원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거를 저희 선생님들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체계가 저는 좀 잡히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직원들도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가족서비스 실무자 L)

#### 2)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운영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가족센터가 전문성을 갖지만 모든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센터가 중심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간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전달, 자원 연계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요즘에 입양 관련된 거 이런 가족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모집이 안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무조건 하라고 하면 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략) 무슨 사업해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이러한 사업에서 최소한 다양함이라고 하는 거를 개별 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유형 이상의 가족은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거로 한다든지 정도로 하려면 그래도 센터들이 쉽게 좀 이해하려나? (가족서비스 실무자 B)

가족센터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그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을 때 훨씬 가족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보호되는 음... 그 취약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센터를 매개로 해서 좀 교류의 접점들을 좀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게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D)

#### 3)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다양성 확대에 따라 가족센터 사업제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선 다양한 가족 간의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그다음에 수용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사업으로 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이와 함께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사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에 가족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기에 적절한 사업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함을 이야기하였다.

1인 가구 대상으로 0000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모집을 할 때 되게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반려견을 통해서 서로 산책하고 또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반려견을 다루는 법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가족과 1인 가구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아리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 프로그램 한 번 더 개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만족도는 매우 높았어요. (중략) 반려견이라는 이런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접근하고 이분들이 관심도가 서로 동일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인 가구와 뭔가 생활 형태도 다르고 가구의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넘어갈수록 더 집중도도 높아졌고 만족도도 더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H)

저희가 우리 비다문화하고 다문화가 가장 잘 사회 통합이 됐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두 가정의 교차점이 있는 경우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임신·출산. 임신·출산 교육을 한다면 나도 임신을 한 상태고 우리 여기 엄마도 나라만 다른 거지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중략)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무엇을 던져봐도 이분들이 서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가족서비스 실무자 J)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막 섞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왜 섞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을 만나는 것으로 하고 (중략) 약간 저희 담당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계속 그걸 섞이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반드시 교육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센터 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스며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4)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앞서 가족다양성 실천의 어려움에서 지적되었듯이,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이 취약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꼭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부분에서 맞벌이 가정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가족의 범주 안에 속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족센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저희 00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히 확대시켜서 맞벌이 가족 아이들을 케어하고, 전문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로 다양한 가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 플러스 그냥 모든 보편적인 그런 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E)

#### 5)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족센터는 지금 여전히 통합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건가와 다가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산도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너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고 하기에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력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로 봤을 때 저희가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이것을 연결해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게 저는 좀 많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게끔.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도 저희가 지침을 내리거나 사업비를 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사실 마음이 있어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대상별 칸막이 예산보다 서비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족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1인 가족으로만 (사업비) 몇 천을 지금 준 거잖아요. 한부모를 해서는 몇 천 안 졌어요. 통으로 돈을 주고 너희가 하는 사업 중에 가정 경제 교육을 할 때 1인 가족 (대상 사업)이지만 경제 교육 같은 재무 관리는 같이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략) 여가 프로그램에 000 이런 거는 (대상 구분 없이) 같이 가도 돼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A)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한 가족센터 실무자들의 운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 혹은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담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가족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 사업에 가족다양성 개념 적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었다. 가족센터 실무자 간의 토론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가족다양성 및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실무에서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족다양성의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가족센터 나름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가족 사업에 대한 적용 노력만으로는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정책 방향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얻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 가족센터에서는 가족다양성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겁고', '잘 모르겠는' 영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를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맞물려 있다. 가족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정책을 가족 사업과 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없이는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지침 또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지침에는 가족정책 현장과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은 무엇인지, 단일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면 가족다양성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가족 사업과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센터는 가족다양성 적용을 고려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 사업을 위한 자원 부족,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실무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이었고, 기존 사업에 가족다양성을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서비스별 구체적인 사업 목표 마련 및 가족다양성을 가족 사업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서비스 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다양성을 주요 목표로 함께 고려한다면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이 가족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는지, 혹은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교류 및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우선되는 목표를 제시한다면 사업 목표 간의 갈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주요 목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인지, 부부관계 향상 혹은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등 그 밖에 다른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사업안내」나 지역센터에서 사업 운영기획 시 사업별 명확한 사업 목적 및 최우선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가족다양성 개념이 적용되거나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sup>

셋째, 향후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족서비스 관계자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주제 발굴 등과 같은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센터

2) 가족센터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발간번호 2022-KIHF-195)를 참고하기 바란다.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향후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사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과 맞닿아 있다. 가족다양성이 주요 정책 목표로 강조되는 만큼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적절한 자원 제공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족센터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진미정, 2021). 가족서비스는 지역별 인구와 가족 규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가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 계획은 지역 가족센터 운영의 어려움 및 지역 내 가족의 욕구 미충족을 초래하게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족센터는 운영 예산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가)~(마) 유형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운영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어서 가족다양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대로 가족센터로 전환한 (마) 유형의 경우 다문화가족 이외 유형의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 방향을 고려한 공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가족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함께 예산 확대 및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서비스 대상자들의 가족다양성 인식의 빠른 변화에 맞춰 실무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 실무자 대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다양성 관련 실무자 교육에서는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 가족센터는 지속적인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가족다양성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가족 사업 수행뿐 아니라 가족센터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마련 등과 함께 가족다양성 인식 및 존중 관련 사업과 캠페인을 통한 가치 공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 관련 정보제공 등에서도 가족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가족다양성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센터의 여러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가족다양성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혹은 어떤 특정한 가족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든 가족에게 열린 공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가족센터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가족센터의 실무자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이후 가족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가족다양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시의성 있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족다양성 적용과 확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개편 근거 및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다양성 관점을 적용한 가족 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선강 · 손서희 · 서찬란(2022).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 김선숙 · 강현경(2012). 유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교육, 21(4), 117-133.
- 3) 김아래미 · 이민정(2015). 사회복지조직의 문화적 역량이 종사자의 다양성 인식과 문화간 의사소통 역량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135-161. DOI : 10.22944/kswa.2015.17.3.006.
- 4) 김화선(2016). 보육교사의 가족이념이 가족다양성 수용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4), 633-654. DOI : 10.21459/kccr.2016.20.4.633.
- 5) 박미경(2017). 예비유아교사의 가족의 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727-747. DOI : 10.22251/jlcci.2017.17.21.727.
- 6) 박인옥(2022).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1-21. DOI : 10.30974/kaice.2022.11.6.1.
- 7) 박정윤 · 김영란 · 손서희 · 진미정(2019).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8) 박정윤 · 장영은 · 이영호 · 한은주(2021). 정책대상과 집행관점에서 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점. 가족정책연구, 1(2), 15-31. DOI : 10.52946/jfp.2021.1.2.15.
- 9) 변수정 · 조성호 · 이상림 · 서희정 · 정준호 · 이윤석(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여성가족부(20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11) 여성가족부(2021). 2025 세상 모든 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2-2025). 여성가족부.
- 12) 여성가족부(2022). 2022 가족사업안내(1). 여성가족부.
- 13) 유계숙(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 문화, 17(2), 211-233.
- 14) 유계숙 ·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5), 79-94.
- 15) 이근애 · 전효정(2010). 이동을 위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1-40.
- 16) 이선영 · 정유진(2018).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다양성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3-29. DOI : 10.21321/jfr.23.3.3.
- 17) 이진숙(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017.10. 78-91.
- 18)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 정책의 과제. 가족정책연구, 1(2), 1-13. DOI : 10.52946/jfp.2021.1.2.1.
- 19) 최섯별 · 이명진 · 최유정(2021).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 도구 개발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 최은경 · 송지은 · 박성민 · 오진실 · 임정하(2021). 국내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3(4), 58-80. DOI : 10.21478/family.33.4.202112.003.
- 21) 한은주 · 설무란 · 오민영(2021).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을 통해 본 강북구 주민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및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22)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DOI : 10.1191/1478088706qp063oa.

■ 투 고 일 : 2023년 03월 16일  
■ 심 사 일 : 2023년 04월 17일  
■ 게재 확정 일 : 2023년 04월 27일